

고령화로 가계소득 불평등 심화



▲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 가계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날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가 한국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인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선 이후 2018년에는 14.3%까지 높아져 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2025년(20.6%)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고연령대일수록 연령대 안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60대 이상은 은퇴로 인해 근로소득이 줄어든 가구와 노동시장에 잔류 중인 가구 간 소득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마다 보유자산 차이가 크다는 점도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불평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0년 이후 사업 및 임대소득이 연평균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미만의 경우 11%에 그친 반면 60~69세는 31%, 70세 이상은 39%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 인구 비중 확대는 1996~2021년 중 한국 가계 전체 소득 불평등 상승분의 30% 상당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민규 한은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는 삼성전자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크루트는 최근 구직 중인 전국 대학생 872명을 대상으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1위는 삼성전자(8.1%)가 차지했다. 이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2009년 이후 5년 연속 1위에 올랐고, 2014년부터는 10위권을 유지하다가 10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삼성전자를 꼽은 응답자의 56.3%는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로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를 꼽았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대졸 초임을 5천300만원으로 인상했다.

2위는 카카오(7.5%)였다. 이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던 카카오는 올해 한 단계 내려갔다. 응답자들은 우수한 복리후생(27.7%)을 카카오를 일하고 싶은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했다.

지난해 2위였던 네이버(6.8%)는 3위로 밀려나고, 현대차(5.6%)는 8위에서 4위로 올랐다. 이어 아모레퍼시픽, CJ ENM, SK하이닉스, 삼성물산,



▲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CJ제일제당이 10위 안에 들었다.

응답자의 전공계열별로 보면 인문·사회·상경계열은 네이버(9.1%)와 카카오(8.9%), 공학·전자계열은 삼성전자(14.1%)와 현대차(9.1%) 선호도가 각각 가장 높았다.

정연우 인크루트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은 "대학생들의 선호 기업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 확실한 보상을 원하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음주·흡연율, 도시보다 시골이 더 높다

대도시보다 시골에서 흡연이나 고위험 음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가 한국질병관리청의 '2022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보고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국 흡연율은 19.3%, 월간 음주율은 57.7%, 고위험 음주율은 12.6%로 나타났다. 모두 코로나19 이후 줄었다가 일상 회복과 함께 전년도보다 늘었다.

흡연율의 경우 특별시의 구, 즉 서울 지역이 16.3%로 가장 낮았고, 가장 인구가 적은 단위인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지역에서 20.8%로 가장 높았다.



▲ 2022 지역건강 주요 통계. ()는 전국 평균. 자료=질병관리청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인 월간 음주율은 특별시의 구가 59.4%로 가장 높고, 군이 53.9%로 가장 낮았는데, 한번에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을 비교하면 그 반대였다. 특별시 구의 고위험 음주율은 10.6%,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13.9%였다.

반면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표는 시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인 스트레스 인지율은 일반 군 지역이 22.5%, 특별시의 구는 25.7%였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